

12월 인성 교육 자료

(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 활용)

12월 5일

한국은 개인주의가 만연

대한민국 국민 5명 중 한 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'개인주의'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평가했다. 또 경쟁과 부, 성공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. 국민일보가 지난 1일부터 3일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'현재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치관'으로 '개인주의'(22.2%)를 꼽았다. '경쟁'(16.7%)과 '부'(14.2%)가 2, 3위를 기록했고, '성공'(11.9%)과 '행복'(11.7%)이 뒤를 이었다. 이타심과 관련한 가치관인 '공동체 의식'과 '배려'는 각각 8.9%와 6.4%로 하위권에 머물렀다. '명예'를 택한 응답자는 2.4%로 가장 적었다. 개인주의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퇴직을 앞둔 50대(29.4%)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경쟁은 청년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(24.2%)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부는 40대(22.9%), 성공은 30대(16.2%)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. 행복은 60대 이상(18.6%)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. 또 우리 국민 중 현재 삶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았다. 현재 가정·사회생활과 건강,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9.2%가 '매우 행복하다'(9.7%)거나 '약간 행복하다'(19.5%)고 답했다. '행복하지 않다'는 답변은 28.0%였다. 특히 행복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국민일보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(34.6%)보다 5.4% 포인트 떨어졌다. 행복하지 않다는 답변은 지난해 22.8%에 비해 5.2% 포인트 올랐다. 1년 새 국민의 체감 행복지수가 하락한 것이다. 연령별로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60대 이상에서 행복하다는 답변이 50.3%에서 28.5%로 큰 폭 하락했다.



국민일보 2016년 12월 9일자 기사 중 일부

※ 생각해보기

1. 다른 사람의 '개인주의'로 인해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?
2. 나는 '개인주의'를 지나치게 강조한 적은 없었나요?
3. 사람은 "사회적 동물"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.